

후회인가? 회개인가? (3)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후회인가? 회개인가? 회개가 없는 후회로 끝나는 인생, 그래서 항상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급기야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가룟 유다처럼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 받은 자들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7:10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그 영광스러운 수준과 상태로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7:11이 답해주고 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간구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만으로 끝내버리고 속 시원해하는 우리들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회개를 통해 이제 더욱 간절히,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분노하며 단호히 끊는 결단과 열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뭐 때가 되면 언젠가 바뀌겠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다. 간절한 분노와 애통함과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뉘우침으로 끝내버리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요엘 2:12-13)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울고짜며 굶식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진정한 회개와 금식이 아니냐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에스겔 18:30-31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신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heart)과 영(spirit)을 이미 새롭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케 된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고집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겠는가! 그래서 32절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Repent and live)”고 말씀하신다.

“Regret and die!” 후회하면 죽는다! 그러나 “Repent and live” 회개하면 산다! 후회인가? 회개인가? (Regret? or Repentance?) 회개로 부름 받은 특권과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거역하지 말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함으로 남은 인생을 그분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열심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